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① 천정배(국민의당·광주 서구을)

“개혁세력 힘 모아 정권교체”

20대 국회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지역 민심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인데다 20년 만에 사실상의 3당 체제로 출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에서 시작된 야권 재편 바람은 국민의당의 탄생은 물론 원내 제3당으로 안착시키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현실화시켰다.

호남 민심은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20대 총선을 통해 여야에서 당권 및 대권 출마가 거론되는 호남 3선 이상 중진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호남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권 창출의 방법론 등을 들어본다.



정권 창출·야당 교체 열망 국민의당 호남 완승 불리

더민주와 개혁·비전 경쟁 당·대권 도전 신중히 결정

▲아직 잘 모르겠다. 새누리당의 리지·개혁적 보수 세력이 틀을 깨고 나서고, 더민주의 계파 패권정치 저항 세력이 모인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벌써 야권 통합을 얘기하는데 현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실제로 더민주(전문재인) 세력이 강화된 상황 아닌가.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개혁 및 비전 경쟁을 해야 한다.

-더민주가 원내 1당이 됐다.

▲전국 호남 유권자들의 교차 투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전국 호남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를, 정당은 국민의당을 교차 선택해 지지한 것이다. 더민주가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호남 주도 정권 교체는 무엇인가.

▲우선 호남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결집하는 것이다. 대선을 통해 호남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호남 민심이 전국의 개혁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 호남의 기득권이 아닌,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타 당과 연합 및 연합정부를 전제할 뒤,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DJP 연합이 그런 방식이다. 타당하고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충분히 모색하고 현실적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평가절하도 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전폭 지지해줬다고 지역 정당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호남에서 더민주 당선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인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 이자 제1야당이다.

-국회부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부의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호남 주도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남 출신이 당 대표를 맡는다면 호남 색채가 강해 당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호남 출신이 최인이나. 새누리당은 영남 출신이 늘 대표가 되도 아무렇지도 않다. 왜 호남 출신만 문제 삼느냐. 야권 내부에도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가 있다. 물론 정치적 현실에 따라 전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이다.

-당권 도전 및 대선 출마 여부는.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

-뉴 DJ 발걸, 혁신 공전 등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치적 한계를 보였다 지적도 있다.

▲노력했지만 현실적 힘이 부족했다. 부덕의 소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보궐 선거를 통해 야권 재편의 나비 효과를 일으켰듯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개혁 정치 복원과 정권 창출을 위해 헌신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4·13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광주·전남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됐다.

천 의원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호남 개혁정치 복원과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 발걸 등의 공약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야권 재편 바람을 일으키면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그는 국회의원회장을 창당한데 이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합당 등을 통해 야권재편의 선봉에 서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호남 완승에 담긴 함의는.

▲정권 창출을 위한 야당 교체 의지가 담긴 것이다. 더민주를 심판한 것이다. 더민주의 지난해 광주 서구 을 보궐 선거에서 패배해 놓고도 호남 민심의 이반을 읽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는 허송세월을 보냈고 이를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야당 교체와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압승 저지를 위해 주장했었다. 야권 연대가 이뤄지지 않아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민심은 새누리당 압승 저지와 야권의 승리라는 지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었다. 당당한 경쟁을 주장한 안철수 대표가 옳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투표를 통한 민심의 불기로 읽힌다.

-20대 국회에서 2차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전남지역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의 전폭적인 지지는 선물 아닌 숙제”

안철수 공동대표 광주 방문... “국민의당 정권교체 도구로 선택한 것”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17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호남 지역민에 감사의 표시로,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안 대표의 호남 방문은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론을 두루 청취하고,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의 우위를 굳힘으로써 향후 차기 대선 국면에서 더욱 치열해질 야권 주도권 경쟁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안철수 대표님 광주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든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KTX편으로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안 대표는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참배에는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장병완 정책위의장,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호남 당선인들, 지역 당원과 5·18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안 대표는 방명록에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의 편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정신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

배 후에는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이) 선물이라 아니라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약속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권교체의 지와 전국정당으로서 집권 가능성을 역설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저희 국민의당에 전폭적 지지로 기회를 주신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당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다. 정치를 바꾸고 국민 삶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권통합과 연대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이합집산만 관심갖고,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인만을 위한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큰 실례라고 본다”면서 야권통합에 대한 반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일각의 ‘호남 자민련’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투표에서는 저희가 제1야당이 됐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는 새누리당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서 “대구·경북에서도 후보를 1명 밖에 못 냈지만, 정당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마무리된 후 국민의당 일부 당선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고정 야권 지지층을 넘어 중도 및 보수까지 외연을 확대해 수권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저희는 이제 시작이다.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험하고 고통스러워도 굴하지 않고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전북 전주로 이동, 전북 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인과의 간담회, 전주 시민들과의 만남 등의 행사에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지도부 이르면 이번주 호남 방문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호남을 뺏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낙선인사자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17일 호남행에 맞붙을 차가워진 텃밭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제대로 호

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는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17일 “김종민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들이 이르면 이번주 호남을 찾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선인뿐 아니라 낙선자들도 합류해 선

거 결과를 견여해 받아들이며 더욱 분발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다짐·약속하는 당 차원의 낙선인사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자칫 호남을 방치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경우, 반감이 더욱 커지며 내년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뾰족한 묘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복운전, 도로위의 폭력행위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소한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보복운전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운전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